

이상한 러브레터

사랑과 사람과 세상과 무의미한 삶.

내가 싸워서 죽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 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느낌과 싸우고 있어.

공포스럽고 무서운 결론에 이르면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내 삶에 놓여진 당신은
이상한 존재야.

“이 모든 게 다 사랑에 대한 거라고?”

내 마음은 여전히 슬퍼.

스스로에게 해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러한 관계를 반복하지.

입속에는 이미 담배가 물려져 있지.
아직 불을 붙여 본 적이 없는 거야.

유독한 걸 알면서도.

나는 혼자야.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걸 나는 알아.
선택을 내려.

이렇게 피곤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당신.
이건 내가 평생 안고 가게 될 운명이겠지.

“죽음!”

하지만 사랑스러운 내 사랑.

내내 어여쁘소서.

충동

나는 외로운 삶을 사는데는
천하 제일의 고수다.

말끔한 기분이 드는 게 싫어서
오늘도 과식을 해버렸다.

그러면 소화를 하느라 두뇌에
충분히 산소가 안간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해도 된다.
통증과 졸리움에 집중해도 된다.

외롭게 사는 게 좋은 걸까.
그러나 반례가 있어.

나는 속으로는
누군가 내게 와서

내 뺨을 때리고 내 손목을
칼로 그어 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 마음의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몸의 고통으로 옮기고 싶어.

오늘은 유난히
자살하고 싶은 날이다.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지옥

지옥에서 구원을 찾는 것만큼
미련한 일은 없을 거야.

그분의 가르침과 은혜는
오직 천국에서만
이해될 수 있거든.

지옥에서는
지옥에서처럼 살아도 돼.

지옥에 사는 동안에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마땅한 방법이 없지.

유일한 구원은
지옥을 탈출해야
얻어낼 수 있어.

지옥을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알라스.

그들을 위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거나
다름없어...

Nu

외롭다

혼자있고싶다

외로워서혼자있고싶다

이미나는혼자있다불안

에편다나는모든게잘되

고있는데평화로운나날

나는불안에편다

이사실을아는것은

오직나밖에없소이다

누구에게도의

지하지않는다누구도나

에게의지하지않는다

그 령지않은것은참으로

이 상한일처럼느껴진다

비 현실적인일처럼

느껴진다

비

도덕적인일처럼

느껴진다

혼자다.

자러간다.